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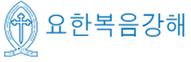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I

(요 2:23-25)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친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마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요 2:24-25).

하나님 마음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롬 5:8).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받으셨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하지 않고 법대로 처분하셨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라고 합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그런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

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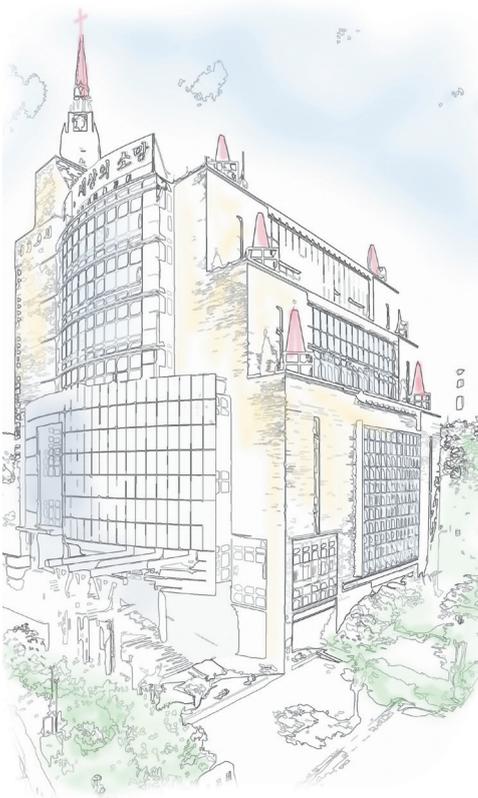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기적은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살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불러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무슨 표적을 보거나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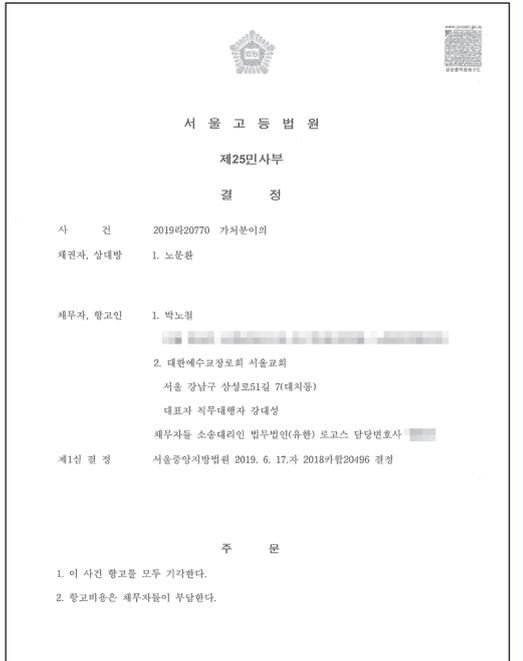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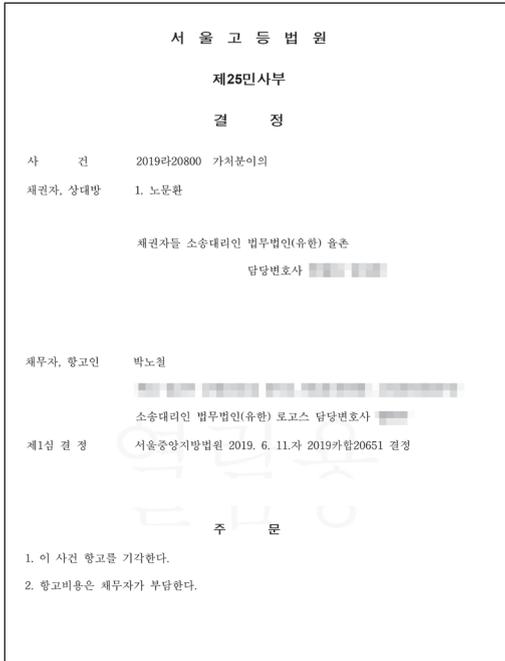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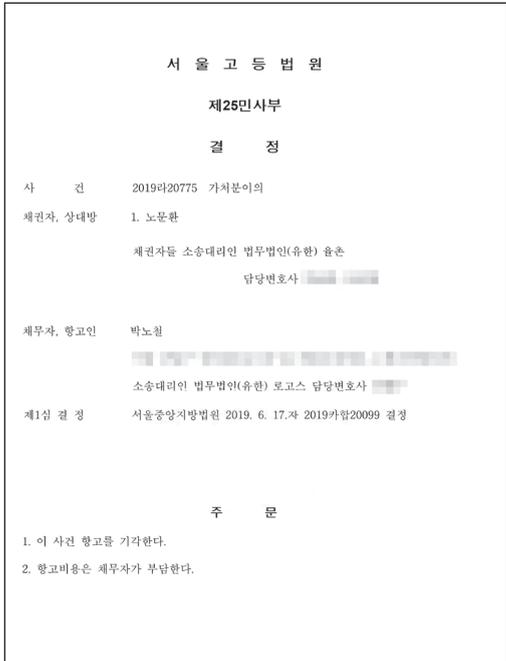
자식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되면 사실도 의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 측 가처분 세 건에 대한 항고 모두 기각

- 장로임직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등 가처분에 대한 항고 건 -



박노철 목사 측은 불법선출 한 15인 장로임직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과 박노철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및 직무정지 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강태성 변호사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들 세 건 모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지한 바 있다.

이후 박노철 목사 측은 위 세 건 모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였으나 지난 2020년 1월 6일(월) 위 세 건 모두에 대하여 다시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 장로선출 이후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교회 예금 인출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대 측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결정문에서는 박노철 목사 측 스스로 이미 지난 재판 당시 그런 안건이 처리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 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여 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도 오히려 박노철 목사나 그 지지 교인들이 위 가처분 이후 교회 건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반대 측 교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한 결정을 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 ① 박노철 목사 측이 계속 제기하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헌법위반 등 불법성에 대하여도 교회 내부의 총체적 분류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교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교회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며 박노철 목사 측 스스로 반대 측에서 추천한 이종윤 목사나 권용평 목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점,
- ② 오히려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른 직무대행자 선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
- ③ 박노철 목사 측에서 다른 교인을 추천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 ④ 또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서울교회가 종교활동 이외에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하고, 임시당회장 등 서울교회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 내부에서 교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목사이어야만 가능한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시하고 있다.

결국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이후 갑자기 불법적인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를 파송하여 서울교회 법적분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까지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었고 또 다수 당회원들이 법원에 추천한 목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이 목사를 배제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빌미와 단초를 제공한 서울강남노회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단 총회가 스스로 먼저 대오각성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 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물론 박노철 목사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고 위 항고기각 결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이제 안식년규정과 이와 관련된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대법원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6일자로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였으므로 조속히 위 상고건이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이고도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일꾼들에게 듣는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김광태 집사
(2020 스테반회 회장)

당회 소속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어 교회 발전에 기여한다.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가, 스테반회 나, 권사회.....

스테반회 회장의 직분을 맡은 이후로 제일 먼저 확인한 사항이 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세상의 악을 볼 수 없었던 서울교회는 평안과 화평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한순간 목회자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장로와 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전까지는...

이는 비단 서울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및 세계가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 만물은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대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인간 개인의 판단으로는 위험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성경적 교훈을 통해 배워왔기에 직분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눈에 들어온 성경구절 "말

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많은 설교를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부족한 종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며 간절한 바램이 있다면 저 또한 그 범주 안에 속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모든 스테반회 회원들과 더불어 몸 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위한 단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뜻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스테반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김선영 권사
(2020 권사회 회장)

서울교회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으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서울교회 권사로 택하여 주심 감사드리오며 맡겨 주신 귀한 권사 직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교회가 회복되는 곳에 모퉁이로 쓰이

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2020년에 계획 되어지는 모든 권사회 사업들이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며 행여라도 주의 일 하다가 실족하는 권사님 한 분도 없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동행하며 돕는 모든 권사님들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길 바

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날까지 귀한 권사님들과 더불어 기도와 헌신의 봉사로 함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중 주님을 바라보며



김숙자 권사
(2020 샬롬권사회 회장)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주님께 감사드리며 벅찬 마음으로 교회를 봅니다.

암흑같이 어둡고 긴 터널, 시련과 고통의 세월, 앞이 보이지 않아 흠어진 성도들, 눈물로 지새우며 잠 못 이루던 긴 날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서울교회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위선의 웃도 벗겠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참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때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샬롬권사회 회장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 주신 책임 감당하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보다는 오늘 젊음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소서.

거동이 불편하셔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권사님들 바라보면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몸은 노쇠하여 안타깝지만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나의 죄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상하며 기다리는 샬롬권사회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되며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서울교회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서울교회 의료선교부(부장:정철웅 집사)는 지난 1월 4일(토)에 2020년 신년 모임을 갖고 기도회와 2020년 의료선교부 사업을 의논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의료선교회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부터다.

초창기에는 파키스탄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의 의료선교사업 지원 등을 돕다가 2000년 11월 4일 직능별선교회가 새롭게 창립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열면서 그 산하의 의료선교회도 회장인 안인호 장로(당시

집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매주일 좁은 장소에서도 성심껏 의료 상담 및 하기 농촌의료선교, 열방교회 의료선교 등 의료선교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0년, 교회의 회복과 함께 의료선교부만이 아니라 다른 직능별선교부 모두 회복되어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흥기 이옥희 이승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 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기록물 (예배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작성했던 컴퓨터 파일을 2020년 1월 말까지 최영철 집사(멀티미디어부 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 명과 기록물 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월 12일 :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성형외과)
- 1월 19일 : 김은석(치과)
- 1월 26일 :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1월 12일현재

한상욱·손영희(1/2) 하혜심(1/2) 한상준(1/2) 류총기·김복희(1/2) 정희순(1/2) 주경자(1/2) 추석우·박정애(1/2) 이준호3(1/2) 이영조·이영자(1) 이성우(1/2) 정철웅(1/2) 장석남(1/2) 차영도(1/2)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후원자 1월 12일현재

1교구 정철웅(2) / 2교구 유근종(1) 이준호(2) / 3교구 성선규·김명심·성지영(3) 이성우(1) 추석우·박정애(1) / 5교구 류총기·김복희(1) / 6교구 모양순(1) 주경자(1) / 9교구 오정수·이영희(10) 이남성(1) 이영조·이영자(4) 한상준(1) / 10교구 김경희(1) 진 돈(1) / 11교구 김정애(3) 장석남(1) / 12교구 노문환(1) 유외숙(1) / 13교구 임광호·김정미(2) 조서현·최진이(1) / 14교구 김정열(1) 김종자(1) 차영도(1)

(다음 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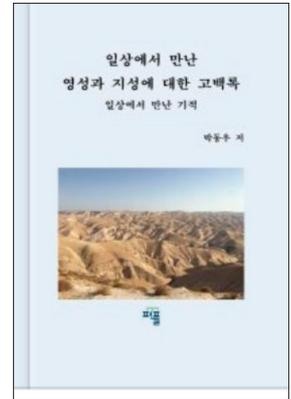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1월 12일현재

노문환·장정화(1) 정철웅(1) 김종철(1/2) 추석우·박정애(1/2) 성선규·김명심·성지영(1) 이성우(1/2) 양옥자·김민우1 김광태·최종희(1/2) 박준희(1/2) 류총기·김복희(1/2) 주경자(1/2) 정성우(1/2) 한상준(1/2) 서명철(1) 장석남·강남희(1) 장하랑(청) 장하늘(청) 하혜심(1) 임하람(청) 임하린(청) 임하울(청) 임광호·김정미(1) 김은희(1) 이상섭(1) 김정열(1/2) 박상훈(1)

(다음 주 계속)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3(월) 한국기독교교회교연맹 총회 및 회원연수회 개최예배 설교를 한다. 1.17(금) 스테반회 회장단과 신년인사를 갖는다.



■ 출간 : 9교구 박동우 집사(의료선교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일상에서 만난 영성과 지성에 대한 고백록'. 교보e-book, 하드카피에서 구매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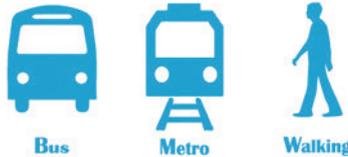
■ 금주의 식사 : 최임수 집사 노인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쇠고기버섯담뽀, 김치

■ 지난 수요일예배 쿨 제공 : 유은경 집사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가정한선교사, 농어촌100교회, 비전2020운동 후원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소생케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B.M.W.운동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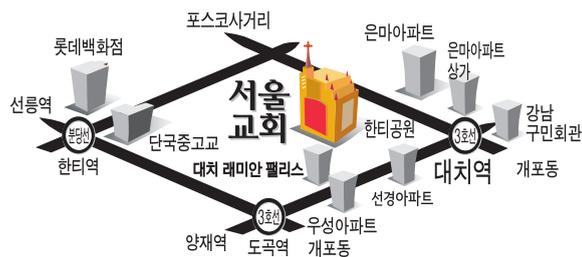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합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일예배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